

5·18희생자 비하 발언, 잡고 보니 대학생

광주지검, '棺을 택배에 비유' 게시물 올린 20대 기소

종편채널 출연자·누리꾼 6명 수사 위임...2명 기소중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5·18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주장 등을 인터넷 카페에서 편견투사한 대령을 사칭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10명이 대구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광주일보 10월 31일자 7면) 받은 바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에 사는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았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리 등 6명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

고 있다.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가 컸을 어머니는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5·18 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수사 대상은 종편채널에 출연한 탈북자와 변호사 등 3명, 일베 등에 폄하 글을 올린 누리꾼 4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광주 외 지역에 살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광주지검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위임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해당 검찰청의 수사결과와 회신이 오면 다시 광주지검이 재개하게 된다.

검찰은 인적사항은 확인됐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탈북자 1명과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된 누리꾼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우병 촛불집회 주도 시민단체 배상책임 없다"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이들이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7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구성원 2000여명이 지난 31일 대학 설립기념탑 앞에서 '조선인 행동하는 양심의 날 결의대회'를 갖고 신임 이사 선임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최해중기자 choi@kwangju.co.kr

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메스'

정부가 현행 선택진료제에 메스를 들이댄다. 이에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대신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유지하되, 선택진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선택진료 대상의 사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는 거의 없애는 방향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신임이사 철회 또 대규모 집회

교직원·학생 등 2000여명 참가...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 촉구

조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2000여명의 대학 구성원들이 지난 31일 대학 설립기념탑 광장에서 법인이사회의 신임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7일에 이어 보름만에 다시 열린 결의대회에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한국비정

교교수노조 조선대분회, 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소속 등 학교 각급 기구의 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옛 비리재단측 이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 선임안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은 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대학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이사 승인을 불허하고 개방이사 선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학 분관 회의실에서 열린 학내 자치기구 추계 토론회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출 선거 입후보자 중 김영수 교육발전연구소장·윤봉근 전 교육위원회 의장·정회근 시의원이 참석해 학교측 입장을 지지하며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3분 해질 17시 38분 달출 04시 13분 달몰 16시 05분

한 낮에 포근
일교차 큰 가운데 가끔 구름 많았다.

광주	구름맑음	10/21°C
목포	구름맑음	11/20°C
여수	구름맑음	13/20°C
나주	구름맑음	9/21°C
완도	구름맑음	12/21°C
구례	구름맑음	8/21°C
강진	구름맑음	10/21°C
해남	구름맑음	9/21°C
장흥	구름맑음	9/22°C
순천	구름맑음	8/21°C
영광	구름맑음	9/20°C
진도	구름맑음	11/20°C
전주	구름맑음	9/22°C
군산	구름맑음	9/20°C
남원	구름맑음	6/20°C
혁신도	구름맑음	13/17°C

식중독지수 지의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풍~동풍	0.5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주의	보통	보통
서해 남부 앞바다	북풍~동풍	0.5m	목포	12:28	05:32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0m	여수	07:31	01:0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0	10/18	8/18	5/19	8/18	7/18

'BK21플러스사업' 특화전문인력 양성 전남대 전국 최다 4개 선정

2019년까지 60억 지원

전남대학교가 'BK21플러스 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형(3유형)에 전국 최다인 4개의 사업단을 선정시켰다. 조선대도 지역특화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1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특히 전남대는 이번 사업에 신청 사업단 모두 선정,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복합형 인력 양성 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전남대 사업단을 포함해 총 54개 사업단에 2019년까지 매년 약 171억원의 예산을 지원, 연간 1000여 명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선정은 전국과 지역 단위로 나눠 진행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대학들이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

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대는 매년 9억1200만원씩 2019년까지 6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고급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의류학과, 생활환경 복지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생명 산업공학과, 의공학과, 문화전통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융합패션 창의인재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재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 전문인력 ▲미래융합 바이오전자제디컬 고급 창의인력을 양성한다.

지방문 총장은 "융·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진담 행정조직을 부활시키고, RA 및 TA 장학금을 늘리는 등 대학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룬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노숙(100석)	취학(90석)	미취학(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통골레 Yun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062)673-7979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담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